

# 접두사 「大(オオ)-」의 단어형성과 품사변환

최태옥\*  
tochoi@iuk.ac.kr

## <要 旨>

本研究では接頭辞「大(オオ)-」の語構成における特性を形態・意味・統辞的分析を通して調べた。「大(オオ)-」派生語の語構成は次のように八つの類型に分けることができる。①[Pre+N]N類(大商人,大胡床など)②[Pre+[V]N]N類(大商い,あしらいなど)③[Pre+A]N類(大甘,大忙しなど)④[Pre+N]N,AV類(大味,大荒れなど)⑤ [Pre+A]AV類(大甘)⑥ [Pre+N]AV類(大雑把,大体)⑦[Pre+N]N,AD類(大旨)⑧[Pre+N]N,AV,AD類(大方,大様)

接頭辞「大(オオ)-」は名詞と結合する特性を持つことが知られている。今度の調査では、用例の殆んどが名詞成分と結合している点で既存の説を裏付けている一方、名詞としては不十分な形態も結合形として存在していることが確認できた。これは語構成の過程で派生語に名詞としての資格が与えられるからだと思う。

接頭辞「大(オオ)-」には「大(タイ)-」と「大(ダイ)-」の異形態も存在するが、結合語基が漢語かそれとも和語かによって使い分けられている。「大(オオ)-」は結合語基を和語に制限するため、それに対応する対義語も「小(しょう)-」形態ではなく「小(こ)-」形態を取っている。

「大(オオ)-」派生語の意味は、「大金(多くの金銭),大柄(普通のものより大形の柄)」の例に見るように、結合語基の本義を保ちながら「大」の意味を添加・補充しているので、意味の有縁性を維持していることが分かる。一方「大荒目,大歌,大口,大庭」などの例では意味の転用がみられる。

接頭辞「大(オオ)-」は名詞派生が主だが、「大味,大荒れ」の例にみるように名詞・形容動詞の複数派生、「大甘,大雑把」の例にみるように形容動詞への派生、「大旨」の例にみるように名詞・副詞の複数派生、「大方,大様」の例にみるように名詞・形容動詞・副詞の複数派生が現れる。本研究ではこのような現象を「大(オオ)-」派生語に「～サマ」の意味を持つ零接尾辞が結合した派生の結果として結論づけている。

【キーワード】 접두사(prefix), 단어형성(word formation), 파생(derivation), 영접미사파생(zero-derivation)

## 1. 서론

단어가 형성될 때 그것의 품사성은 형태상 後項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수가 많다. 형태론에서 말하고 있는 이른바 우측주요부규칙(Righthand Head Rule)이 적용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일본어의 단어형성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일본어 用言에서 동사는 그 기본형의 語尾가 「ウ段」, 형용사는 「イ」, 형용동사는 「ダ」로 각각의 품사성이 語尾 형태에 의해 달라지는 것과 같이 단어의 의미는 형태를 결정한다. 따라서 「サボ<sub>る</sub>/デリケート<sub>だ</sub>」와 같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질 때 「サボ/デリケート」의 의미와 그것이 가지는 문법적 기능에 따라 적절한 語尾 「-る/-だ」가 부여되면서 품사성이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1)</sup>. 이러한 현상은 합성어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同じことを繰り返すな/単調な作業の繰り返しが続く」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향과 후향이 같은 단어의 조합의 대응에서 전자가 동사 후자가 명사로 각각의 품사성이 결정되는 이유는 후향의 형태 및 그에 따른 문법적 기능이 文 중에서 각각 다르게 적용되

\* 한국국제대학교 교수, 일어학

1) サボる(「サボタージュ」의 약어), デリケートだ(delicate)

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우측주요부규칙의 이러한 현상은 파생어 형성에서도 다를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접사와 語基에 의한 파생어 생성에서 접미사와 접두사는 語基를 중심으로 그것들이 각각 달리 위치하는 까닭으로 인해 파생어의 양상 또한 달리 나타난다. 즉 語基 뒤에 위치하여 단어의 품사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적인 접미사가 다수 있음에 비해, 語基 앞에 위치하는 접두사는 품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접미사에 비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접미사의 경우 「高さ」에서의 「さ」, 「寒がる」에서의 「がる」와 같이 단어의 後項에 위치하여 語基에 문법적 기능을 부가하거나 품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수 존재하는 반면, 접두사는 「無-, 不-, 未-」 등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접두사를 제외하고는 품사변환의 예를 찾기 어렵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無-, 不-, 未-」 외에도 語基의 前項에 위치하는 접두사이면서 파생어 형성에서 품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大(オオ)-」를 전항으로 취하는 경우에서 발견되고 있다. 접두사 「大(オオ)-」는 명사와 결합하여 단어형성에 관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後項 요소는 명사로 한정되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大(オオ)-」의 파생어인 「大急ぎ」가 「大急ぎの手紙/大急ぎで用事をすませる」와 같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전자는 명사로, 후자는 형용동사로 文 중에서 기능하고 있다. 전자가 명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것은 접두사 「大(オオ)-」의 특성을 생각할 때 충분히 이해되는 사실이지만 후자의 경우 명사가 아니라 형용동사로 기능하고 있는 이유를 후향인 「急ぎ」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急ぎ」는 동사 「急ぐ」에서 파생된 것으로<sup>2)</sup>, 자립적으로 사용될 경우 「急ぎの用/急ぎの使い」와 같이 명사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 형용동사로서의 용법은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大甘」例에서도 나타난다. 「子供に大甘な親/そんな見通しは大甘だ」와 같이 「大甘」의 後項 「甘」은 형용사에서 비롯된 語基로, 그 단독의 자립적인 용법은 찾기 힘들고, 접두사 「大(オオ)-」와 결합했을 때 비로소 형용동사의 기능을 가지게 된다. 형용사 語基가 형용동사로 파생되어 기능하는 경우는 「大きい-大きな, 細かい-細かな」類와 같이 同根異形態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례를 찾기 힘든 현상인 점을 감안한다면 품사변환의 과정에 접두사 「大(オオ)-」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本稿에서는 「大(オオ)-」에 의한 단어형성과 그것의 형태, 통사, 의미적 특징을 통해 통사적 범주의 변화를 초래하는 파생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本稿에서는 『大辞林』에 표제어로 등재된 「大(オオ)-」파생어를 추출하여 그것들이 어떠한

2) 派生은 종종 転成이라는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다. 兩者의 차이는 새로운 단어의 생성에 있어서 접미사의有無에 의해 달라지는데, 접미사가 있는 것은 派生, 접미사가 없는 것은 転成으로 보았다. 兩者 사이에는 이러한 점 외에는 어떠한 이질성을 발견할 수가 없어 구분이 불분명한데, 야마다(山田孝雄, 1984, pp.553-570)에서는 접미사의 첨가에 의한 것마저 「転成」의 관점에서 보고 있다.

형태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통사, 의미적 특성은 어떠한지 등의 분석을 통해 「大(オオ)-」의 단어형성에 있어서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大辞林』을 사용하는 이유는 현대일본어를 중심으로 일상어부터 전문어까지 폭넓게 수록하고 풍부한 용례와 해설로 현대일본어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점에서 자료로 채택하였다 例語 조사에서는 인명, 지명을 제외한 「大(オオ)-」 파생어가 301例 추출되었는데, 이것을 대상으로 품사변환 현상을 포함한 파생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접두사 「大-」는 本稿에서 다루게 될 「大(オオ)-」 외에 「大(タイ)-」 및 「大(ダイ)-」의 異形態로도 단어형성에 관계한다. 일본어 단어형성에서 漢語는 漢語끼리, 고유의 일본어(和語)는 고유의 일본어끼리 서로 결합하기 쉬운 속성이 「大-」 파생어에서도 역시 나타나고 있다. 사야마(佐山佳子, 1986)의 선행연구에서는 「大-」의 訓讀인 「オオ-」가 後項에 고유의 일본어가 語基로서 결합하기 쉬운 특성을 갖추고 있는 것에 비해 「大-」의 音讀인 「タイ-/ダイ-」는 後項에 1字 혹은 그 이상의 漢語가 결합하기 쉬운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따라서 「タイ-/ダイ-」는 「オオ-」에 비해 단어형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語基의 품사성 구별의 불확실함 및 연구 범위의 방대함 등의 문제로 금번 연구에서는 「オオ-」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접두사 「大(オオ)-」는 명사와 결합한다는 전제를 확인하기 위해 301例에 대해 結合하는 語基를 파생 전의 품사 성향에 따라 분류하고, 대응하는 접두사와의 관계에 따른 파생 양상을 통해 형태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大(オオ)-」 파생어의 語基에 대한 자립성 여부는 『大辞林』과 『国語学大辞典』을 참고로 한다.

품사변환 현상이 나타나는 「大(オオ)-」 파생어가 文 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한 어떤 것들과 共起하고 있는지 등의 통사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한 용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야후 재팬에서 추출한 것을 사용하는데, 1例 당 100개의 용례를 추출하여 共起를 통해 그 통사적 특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접두사 「大(オオ)-」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극히 미미한 편이다. 그 이유는 접미사가 문법적 기능과 관련되는 점이 있어 이 방면의 연구가 다소 진행되어 왔던 점에 비해 접두사는 그러한 기능이 결여된 탓으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본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로 사야마(佐山佳子, 1986)에서는 「大-」가 「オオ-, タイ-, ダイ-」의 異形態로 나타나는 점에 주목하여 語基의 특성과 의미 서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大(オオ)-」의 품사변환 현상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외에 접두사의 품사변환과 관련한 최근의 선행연구로 다가와(田川拓海, 2007)<sup>3)</sup>의 연구가 있다. 다가와는 부정의 접두사 「不-」이 단어형성에서 범주변화(품사변환)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 분산형태론에 근거해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즉 「-さ」와 같은 접미사에 의한 범주변화 파생은 출력되는 범주가 하나로 결정되어 있는 関数的 대응에 속하며, 「不-」과 같은 접두사에 의한 범주변화 파생의 경우는 출력되는 범주에 複數

3) 「二種類の範疇変化とその構造的定義」 『言語学論叢第26号』, 筑波大学一般・応用言語学研究室, p.2

의 가능성이 있고, 부가하는 基体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접두사와 접미사의 품사변환의 차이에 대해 √(root)에 최초의 어휘 범주가 지정되어 있는 단어가 형성되는 과정 (Root-derived word)과 일단 범주가 지정된 것에 대해 어떤 조작을 통해 단어를 파생시키는 경우 (Word-derived word)와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여 접두사의 경우 전자에 의한 파생, 접미사의 경우 후자에 의한 파생으로 구별하고 있다 이것은 접두사 「不-」에 의해 품사 범주가 바뀌는 현상에 대해 우측주요부규칙의 예외라는 기존의 설명에서 벗어난 새로운 견해이기는 하나, 접두사 파생에서 품사변환 현상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本稿에서는 이와 같이 품사변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접두사 「大-」가 형태상으로는 파생어의 前項에 위치하고 있으나, 의미상으로는 파생어의 후항에 위치하여 결과적으로는 우측주요부규칙이 적용된 영접미사 파생의 결과로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일본어에서 이와 같이 형태 변화 없이 품사변환 현상을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에는 동사연용형이 명사로 파생되는 것과 관련하여 사카쿠라(阪倉篤義)<sup>4)</sup>, 니시오(西尾寅彌)<sup>5)</sup>, 마스오카·다쿠보(益岡隆志·田窪行則)<sup>6)</sup>, 가케야마(影山太郎)<sup>7)</sup>, 최태옥(2002)<sup>8)</sup> 등의 연구가 있는데, 이 중 최태옥에서는 영접미사파생이 동사-명사 뿐만 아니라 다른 품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밝힌 바 있다

### 3. 「大(オオ)-」 파생어의 단어형성

#### 3.1 「大(オオ)-」 파생어의 형태적 특징

「大(オオ)-」에 의한 단어형성을 『大辞林』을 통해 살핀 결과 301例가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例語 조사에서는 인명 및 지명 등 前項이 「大-」이기는 하나 「大-」파생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제외하였다. 표제어는 대체로 「大味」에서의 語基 「味」처럼 원래 명사에 속해 있거나, 혹은 「大当り」에서 語基 「当り」가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인 것과 같이 명사성 語基에 결합하기 쉬운 형태적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는 한편, 「大甘」와 같이 語基가 형용사에서 유래된 것도 조사되었다. 조사를 바탕으로 한 「大(オオ)-」파생어의 형태적 특징은 아래와 같이 3種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 [Pre + N]N類: 大商人, 大胡床, 大顎 등
- (2) [Pre + [V]N]N類: 大商い, あしらい, 大当り 등

4) 「語構成序説」『語構成』, ひつじ書房, p.20

5) 「動詞連用形の名詞化に関する一考察」 p.193

6)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p.68

7) 「日英語の語形成」『語構成』, ひつじ書房, pp.46-56

8) 「일본어 단어형성에 있어서 영접미사 파생에 관한 연구」『일어교육』 제20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02, pp79-88

(3) [Pre + A]N類: 大甘, 大忙し, 大辛 등

(Pre:접두사, N:명사, V:동사, A:형용사)

「大(オオ)」파생어의 형태적 특징을 語基의 품사성에 따라 분류하면 명사가 224例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동사 73例, 형용사 4例로 나타났다. 그것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大(オオ)」파생어

語基의 품사성	例 語
명사(224例)	大商人, 大胡床, 大顎, 大麻, 大字, 大足, 大味, 大汗, 大頭(おおあたま), 大穴, 大姉, 大雨, 大綾, 大荒目, 大粟, 大飯, 大息, 大軍, 大石, 大板, 大井, 大上, 大嘘, 大歌, 大内, 大桂, 大海, 大裏, 大兄, 大祖父, 大奥, 大奥様, 大伯父, 大男, 大伯母, 大祖母, 大臣, 大女, 大垣, 大角, 大衆, 大傘, 大頭(おおがしら), 大風, 大方, 大型, 大金貝, 大金, 大矩, 大歌舞伎, 大鐘, 大壁, 大鎌, 大神, 大柄(おおがら), 大川, 大鼓, 大看板, 大君, 大具足, 大口, 大藏, 大塊, 大袈裟, 大下馬, 大格子, 大声, 大腰, 大御所, 大事, 大駒, 大杯, 大先, 大酒, 大匙, 大札, 大雑把, 大皺, 大路, 大潮, 大鹿, 大時化, 大仕事, 大時代, 大芝居, 大霜, 大正月, 大鉦鼓, 大庄屋, 大上臈, 大所帯, 大新聞, 大筋, 大相撲, 大勢, 大関, 大節季, 大切羽, 大錢, 大掃除, 大總代, 大底, 大袖, 大外, 大空, 大損, 大鯛, 大台, 大代官, 大太鼓, 大刀, 大立物, 大店, 大束, 大髻, 大旦那, 大通事, 大土, 大槌, 大筒, 大鼓, 大綱, 大粒, 大壺, 大面, 大手(おおて), 大手(おおで), 大体, 大父, 大門, 大戸, 大胴, 大道具, 大所(おおどころ), 大所(おおどころ), 大年, 大刀自, 大どた, 大殿, 大供, 大鳥, 大名, 大鉦, 大波, 大滑, 大贅, 大西, 大庭, 大人数, 大幣, 大主, 大根, 大野, 大のら, 大羽(おおば), 大場, 大馬鹿, 大恥, 大筈, 大羽(おおばね), 大幅, 大梁, 大判, 大番衆, 大番頭, 大墓目, 大額, 大筆簞, 大姫君, 大百姓, 大百日, 太平, 大蒜, 大鰯, 大広間, 大風, 大服, 大札, 大舞台, 大筆, 大船, 大振袖, 大柄(おおへい), 大部屋, 大間, 大前, 大幕, 大柁, 大股, 大的, 大豆, 大眉, 大身, 大砌, 大水, 大店, 大晦日, 大道, 大峰, 大耳, 大宮, 大昔, 大旨, 大棟, 大目, 大面, 大本, 大物, 大門, 大家, 大宅, 大山, 大床, 大雪, 大指, 大弓, 大様, 大姫, 大鎧, 大粹, 大技, 大腸, 大曲, 大童
동사(73例)	大饗(一あえ), 大商い, 大あしらい, 大当り, 大有り, 大荒れ, 大慌て, 大急ぎ, 大入り, 大入れ, 大受け, 大写し, 大売り出し, 大落とし, 大踊り, 大掛かり, 大翳, 大鍛冶 <sup>9)</sup> , 大かぶり, 大刈り込み, 大切り, 大食い, 大括り, 大腐り, 大組, 大暮れ, 大検見, 大騒ぎ, 大仕掛け, 大摺り上げ, 大備え, 大反り, 大田植え, 大助かり, 大裁ち, 大立ち回り, 大掴み, 大作り, 大晦 <sup>10)</sup> , 大詰め, 大積り, 大出来, 大通り, 大舍人 <sup>11)</sup> , 大飛出(一とびで), 大泊, 大貫(一ぬき), 大乘, 大博打 <sup>12)</sup> , 大話, 大流行り, 大祓い, 大払い, 大祓え, 大番組, 大引き, 大引け, 大振り, 大降り, 大振舞い, 大風呂敷, 大曲がり, 大負け, 大回し, 大回り, 大忌(一み) <sup>13)</sup> , 大持て, 大盛り, 大寄せ, 大弱り, 大患い, 大笑い, 大割り
형용사(4例)	大甘, 大忙し, 大辛, 大広

접두사 「大(オオ)」는 명사와 결합하여 단어형성에 관계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語基가 명사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미루어 짐작 가능하지만 모두 확인 절차를 거쳤다. <표1>에서 명사 語

9) 大鍛冶> 鍛冶: 「かなうち(金打)」から変化した「かぬち」の転

10) 大晦> 晦: 「つきごも(月隠り)」の音変化

11) 大舍> 舍: 「との(殿い)(入り)」の音変化

12) 大博打> 博打: 「ばくうち」の音変化

13) 大忌> 忌: 「おおいみ」の音変化

基 224例가 自立語基인지의 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두 自立語基인 것이 확인되었다(자립성에 대한 판정은 語基가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지와 명사적 용법이 가능한지 여부를 『大辭林』, 『日本国語大辞典』, 웹 검색 등을 통해 조사하였다). 한편 語基가 동사인 경우는 73例 조사되었는데, 「大持て」의 1例를 제외하고는 72例가 自立語基인 것이 확인되었다. 동사는 아래 예(4)에서 보는 바와 같이 「商う」商い, あしらう」あしらい, 入る」入り, 掛る」掛かり, 作る」作り」 등 연용형의 형태로 명사로 파생하는데 語基 그 자체만으로 자립적이지 못한 「大持て」의 경우 이 외에도 「強持て」 등의 단어형성 例가 보이는데, 일본어 단어형성에서 단순 語基만으로 단어형성이 어려울 경우 다른 요소와의 결합에 의해 단어형성이 가능한 것과 같이 「-持て」는 「大-, 強-」와의 결합에 의해 명사로 파생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語基를 명사로 제한하는 접두사 「大(オオ)-」 단어형성에서도 일반적인 파생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4) 大足> 足: 足を組んで椅子に座る。  
 大道> 道: 駅へ行く道で知人に会う。  
 大門> 門: 公園の門のところで待っている。  
 大商い> 商い: 商いが少ない。  
 大あしらい> あしらい: ひどいあしらいを受けた。  
 大入り> 入り: 客の入りがいい。  
 大掛かり> 掛かり: 掛かりの者が応対する。  
 大作り> 作り: 店の作りを変える。

접두사 「大(オオ)-」가 형용사 語基와 결합하는 것은 「大甘, 大忙し, 大辛, 大広」의 4例가 조사되었다. 이것들은 각각 형용사 「甘い, 忙しい, 辛い, 広い」 등에서 파생된 것으로, 일본어 형용사가 독립된 명사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형용사 語幹 그 자체로는 명사를 형성할 수 없다. 「山の高さを測る/この梨は甘みがある」例文에서의 「高さ/甘み」등과 같이 「-さ/-み」등 별도의 접미사를 첨가하거나, 「近くにある公園/遠くへ行く」와 같이 「-く」연용형의 형태에서 명사형성이 가능하다. 형용사의 語幹이 명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예는 「今の円高を危ぐ、為替リスクに何らかの対応が必要だ/手近にある物で間に合わせる」등의 例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구성요소와의 결합에 의해 가능하고, 형용사 語幹인 「高/近」그 자체 만으로는 독립 형태로서 기능하기는 어렵다. 오로지 구축 형태인 복합어의 구성 성분으로서 사용될 따름이다<sup>14)</sup> 한편 형용

14) 단독으로 명사 파생이 어려운 「書き」를 예로 들면, 「読み書き、下書き」등의 단어형성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단순어에서는 단독으로 名詞化되기 힘든 것이 합성어에서는 가능한 것이 많은데 그 이유를 음절 수와 의미 범주의 한정과 관련짓기도 한다.

15) 「手近」의 경우 엄밀히는 명사 외에 형용동사로도 複數 파생한다. 형용사 어간을 後項으로 취하는 복합어에서는 형용동사 단독 파생하거나 명사 및 형용동사로 複數 파생하는 경우가 흔한 편이다.



사 語幹이 「高を括る/高が知れている」例와 같이 독립 형태로서 명사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은 관용구적 용법으로 일반적인 명사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語基 「-甘/-忙し/-辛/-広」는 「大(オオ)」와의 결합에 의해 단어형성을 하게 되는 것인데, 「-忙し/-辛/-広」가 명사로 파생되는 것에 비해 「-甘」는 「娘に大甘な父親」와 같이 형용동사로 파생되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또한 「「図書館戦争」のベタ甘な後日談がよいは発売...」와 같은 例文에서 볼 수 있듯이 「ベタ甘」라는 新語 생산도 가능한 점에서 「-甘」의 생산성을 엿볼 수 있다. 「-甘」는 語基를 명사로 제한하고 있는 접두사 「大(オオ)」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특수한 현상으로 보인다.

접두사 「大(オオ)」는 고유의 일본어와 결합하기 쉬운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따라서 대의어는 아래의 例(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접두사 「小」가 「小(コ)」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이다. 따라서 「大(オオ)」의 異形態인 「大(たい)」의 경우 「大雨(たいう)-小雨(しょう)」대응에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대의어는 「小(コ)」가 아니라 「小(しょう)」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例(6)과 같이 동일한 漢字가 「大」의 異形態에 의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5) 大雨(おおあめ)-小雨(こさめ)

大商い(おおあきない)-小商い(こあきない)

大男(おおおとこ)-小男(こおとこ)

大頭(おおがしら)-小頭(こがしら)

大型(おおがた)-小型(こがた)

(6) 大海(おおうみ)-大海(たいかい)

大金(おおがね)-大金(たいきん)

大腸(おおわた)-大腸(だいちょう)

大患い(おおわずらい)-大患(たいかん)

위의 例에서는 語基의 형태적 차이 외에 의미상의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大頭, 大風」에서는 「大(オオ)」형태로 파생될 때와 「大(ダイ)」형태로 파생될 때 그 의미가 반드시 같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이 조사되었다. 「大頭」는 「おおがしら, だいがしら」의 異形態를 가지며, 「大風」은 「おおふう, おおかぜ」, 「大味」는 「おおあじ, たいみ」의 異形態를 가지는데, 특히 「大味」의 경우 완전히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경우가 例(7)과 같이 조사되었다.

(7) 大頭(おおがしら): 多人数の集団の長

大頭(だいがしら): 室町末期から江戸初期にかけて栄えた幸若舞(こうわかまい)の一派

大風(おおふう): 威張って人を見下したような態度であること(さま)

大風(おおかぜ): 強く激しく吹く風. 暴風

大味(おおあじ): 食物の味にこまやかな風味が感じられないこと. また, そのさま.

大味(たいみ): すぐれてよい味

例(7)에서 보는 바와 같이 「小頭(こがしら)」는 「大頭」가 「おおがしら」의 형태일 경우에만 대응하게 되며, 「大風」은 그에 대응하는 형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외에도 「大(オオ)-」 파생어의 형태적 특징으로 명사로 1차 파생 후 다시 2차 파생하는 현상도 예(8)과 같이 조사되었다.

(8) a. 子供連れで来て、大騒ぎしていく御客様も結構いるんですよ。

b. 料理歴4年、B型故の大雑把さが料理にもよく表れます。

例(8)a에서 명사인 「大騒ぎ」가 「する」와 결합하여 「大騒ぎする」와 같이 동사로 다시 파생되거나, (8)b와 같이 형용동사인 「大雑把」가 접미사 「-さ」와 결합하여 「大雑把さ」와 같이 다시 명사로 파생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 3.2 「大(オオ)-」 파생어의 의미적 특징

파생어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語基의 의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고 본다. 접두사 「大(オオ)-」의 사전적 의미는 「大きい(大男)、多い(大雨)、広い(大通り)、程度のはなはだしいこと(大騒ぎ)、大体の(大味)、大事な(大一番)、最後の(大晦)、上位の(大叔父)、尊敬や賛美の気持(大御所)」등으로 기술되어 있어, 語基의 의미에 대해 다양한 「大(オオ)-」의 의미를 부가 혹은 한정하고 있다(『大辞林』). 따라서 「大金, 大枡」가 각각 「多くの金銭, 普通のものより大形の枡」를 의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語基와의 의미적 有緣性を 유지하면서 語基의 의미에 「大」의 의미가 첨가 보충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파생어는 語基 의미와의 有緣性の 정도에 따라 本義와 転義로 나눌 수가 있다. 有緣性(motivation)이란 단어의 형태와 의미 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파생어의 의미는 의미적 유연성에 따라 크게 本義와 転義로 나눌 수가 있고, 本義는 語基가 가지는 본래의 의미가 파생어에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뜻한다. 転義는 이와는 달리 語基에는 없는 다른 의미가 파생어에 새롭게 생성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本義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大(オオ)-」 파생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체적으로 本義에 충실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한 단어는 하나의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진다 즉, 본



래의 의미를 바탕으로 하여 여러 다른 의미로 파생해 가는데 이때 의미의 파생 방법은 단어마다 차이가 있어서 일률적으로 단정 지어 말하기 어려운 점은 있으나 대체적으로 의미의轉用에 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多義性을 구성하는 모든 의미는 반드시 그 중심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특징을 매개로 하여 轉用된 것이고, 또 역으로 각각의 의미로의 전용의 매개로 된 의미 특징을 모음에 따라 중심적 의미는 규정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16)</sup> 단어의 의미를 어떤 순서로 배열했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부분의 사전들에서 뜻풀이가 가장 먼저 등재된 내용은 대체로 일치를 보이고 있으므로 첫 번째 항목의 의미가 그 어휘항목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 즉 중심의미라고 보는 것이다. 「大荒目」와 「大時代」의 경우를 보기로 하자. 「大荒目」의 語基 「荒目」는 「編み物・織物・金網・やすりなどの目のあらいこと」라는 명사적 의미와 「あらくて、きめこまかくないさま」라는 형용동사적 의미를 함께 가진다. 그러나 파생어 「大荒目」는 「鎧の威の一。札を普通より幅広にとり、太い緒であらくまばらにおどすもの」로 해석되어 의미의 轉用이 나타나고 있는 예에 속한다. 「大時代」의 語基 「時代」는 「社会構造・政治形態や文化・思想など、ある目安によって区分された、相当の長さの歴史的期間」을 의미하는 것이 「年代古めかしく大げさで時代遅れなこと。また、そのさま」로 해석되어 의미의 轉用 예에 속한다.

이러한 例는 「大歌, 大詰め, 大庭」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9) 大歌:宮廷の神事・宴遊などにうたわれる歌。

大詰め:芝居の最終の幕、また場面。

大庭:宮中の紫宸殿(しんでん)の前面の庭。

### 3.3 품사변환에 관계하는 「大(オオ)」 파생어의 통사적 특징

「大(オオ)」 파생어는 명사로 파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통사적 특징도 명사의 일반적인 특징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명사 외에 형용동사 등의 다른 품사로도 파생되는 경우는 그 양상이 조금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품사변환에 관계하는 「大(オオ)」 파생어의 통사적 특징을 살피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야후 재팬)를 이용하여 語基의 파생전의 품사가 각각 다른 「大味, 大急ぎ, 大甘」의 3例를 대상으로 1例 당 100개의 용례를 추출하여 共起를 통해 그 통사적 특성을 살피기로 한다.

(10) a. 観客数もW杯の余波でかなり増えているそうですが、心配なのは試合の内容がかなり大味な気がすることです。

b. 初めて目の当たりにしたムラーノは正直、大味に映った。

16) 중심의미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어휘항목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첫 번째 항목의 의미를 말한다.

- c. 味の方も少し大味だけど、薄いピンク色の身は新鮮さが感じられる。
- d. いまでもたまにとんでもないのには出くわして世界は広いのだなと感嘆するが、「大味ではない」でなく「行き届いている」。
- e. ロシアの大味さに魅せられるオッサン日誌。
- f. 正直言ってあまりの大きさ故に味は大味かと思っていたのですが、身はプリプリ弾力有り味は濃くこんな美味しい海老食べたこと無いと言うぐらい素晴らしかったです。
- (11) a. 一日の終わりに、大急ぎな状態を楽しんでる..余裕のえみちゃん節、本日も健在ナリ。
- b. 会社設立の方全員に、印鑑無料サービスで、大急ぎにも対応。
- c. 民主党が大急ぎでマルチ商法とのつながりの痕跡を消しにかかっている件
- d. 大急ぎです!!小論文などの書類ってボールペンで書くべきですか?
- e. 何でそんなに大急ぎかと言いますと、ガンで入院してる人用だから ...
- f. 大急ぎのお散歩だったけど、雨の前にちゃんとお散歩行けて良かったね。
- (12) a. 日本相撲協会が10日の理事会で決めたそうですがマスコミ各誌大甘だと辛口の論評が目立ちます
- b. 自民党の自己評価では、A評価55項目、B評価65項目、未着手0という内容で、公約は達成していると大甘な評価内容ですが、どうなのでしょうね?
- c. 大甘で見えてみぬ振りが普通だからしょうがない。自然体相場ならこれだけ押さえつければ反動が大きい。
- d. 考えてみれば、一度刻まれた誤解を解くのに、「サンマ煮ました」と答えるなんて、不二家のペコちゃんも泣いて逃げ出すくらい大甘だった。
- e. なぜ『緊急経済対策』が大甘すぎるのか
- f. 朝日新聞や読売新聞でも多摩地域で最も大甘の条例との取り上げがされています。

(10)과 (11)의 「大味, 大急ぎ」는 파생어의 품사성 조사에서 명사와 형용동사의複數 파생을 하는 것이고, (12)의 「大甘」는 형용동사파생으로 조사된 것이다 파생어와 결합하는 文의 성분을 중심으로 살핀 결과 「大味」의 경우 (10)a~e는 형용동사로서 文 중에서 기능하고 있고, (10)f는 명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0)e의 「大味さ」와 같이 「大味」가 명사와 접미사 「-さ」와 결합하여 다시 명사로 파생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11)의 「大急ぎ」의 경우 (11) a~d는 형용동사로서 文 중에서 기능하고 있고, (11)e~f는 명사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大甘」의 경우 (12) a~e는 형용동사로 기능하고 있고, (12)f에서는 명사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품사성 조사에서 「大甘」가 형용동사로만 파생되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大甘の条例」가 아니라 「大甘な条例」로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大甘の」와 같이 「大甘」가 조사「の」와 결합한 형태의 용례가 적지 않은 사정을 고려하면大甘

の恋愛小説を貰け....., 北に大甘のオバマ政権....., 外郭団体の不祥事に大甘の大阪市役所....)이 형태는 어느 정도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大甘」가 명사로도 파생된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の」 이외에는 「が、を、は」 등 명사적 특성을 나타내는 여타 조사와의 결합 형태는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3.4 「大(オオ)」 파생어의 품사변환

접두사 「大(オオ)」가 명사 語基에 결합하여 주로 명사 파생의 특성을 가지는 것을 앞에서 보아 왔다. 표제어 301例는 접두사 「大(オオ)」의 특성에 의해 대부분 명사 파생의 양상이 나타나나, 이 중 29例는 명사 외에 형용동사 혹은 부사로도 파생되어 통사적 범주의 변화를 초래하는 경우가 이번 조사에서 나왔는데, 「大急ぎ」와 「大甘」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기로 한다. 「大急ぎ」는 아래와 같이 명사 이외에 형용동사로도 파생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13) 大急ぎの手紙。

(14) 大急ぎで用事をすませる。

例文(13)은 「大急ぎ」가 ‘지급(至急)’의 의미로 명사로서 기능하는 경우이고 例文 (14)는 「大急ぎ」가 ‘급히’의 의미로 형용동사로서 기능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와 유사한 예를 「大甘」와 「大様」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大甘」의 경우 접두사 「大(オオ)」파생이기는 하지만, 명사로서의 기능은 전혀 볼 수 없고 형용동사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大様」의 경우 명사, 형용동사, 부사로서 기능하고 있다.

(15) 末っ子に大甘な親。

(16) 宿泊の大様の紹介。

(17) 彼は大様な人だった。

(18) 世の中とは大様そんなものだ。

例文 (15)에서 「大甘」는 ‘지나치게 관대함’의 의미로 형용동사로서 사용되고 있다 또한 「大様」는 例文 (16)에서는 ‘대략’의 의미로 명사로서 사용되고 있고 例文 (17)에서는 ‘대범함’의 의미로 형용동사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例文 (18)에서는 ‘대체로’의 의미로 부사로서 각각 기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접두사 「大(オオ)」와의 결합에 의해 품사변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301例 중에서 29例 조사되었는데, 명사와 더불어 형용동사로 複數 파생하는 것이 23例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형용동사파생으로서 3例의 예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다지 생산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명사·부사가 1例, 명사·형용동사·부사 등의 複數 파생이 2例 조사되었다. 그것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lt;표 2&gt; 「大(オオ)-」 파생어의 품사변환 예

품사 성분	例 語
名詞・形容動詞(23例)	大味 大荒れ 大慌て 大忙し 大急ぎ 大掛かり 大柄 大袈裟 大仕掛け 大時代 大空 大束 大掴み 大作り 大粒 大場 大馬鹿 大幅 大風 大振り 大柄 大耳 大童
形容動詞(3例)	大甘 大雑把 大体
名詞・副詞(1例)	大旨
名詞・形容動詞・副詞(2例)	大方 大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접두사와 결합함으로써 인해 품사변환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아주 특이한 사항으로 인식되어 온 것에 그쳤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大(オオ)-」 파생어가 명사 語基에 결합하는 특성 때문에 그 의미가 명사를 대표하는 「~コト」 혹은 「~モノ」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반면 명사 이외의 품사변환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サマ」의 의미 기능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착목하여 품사변환이 발생하는 것은 접두사 「大(オオ)-」 때문이 아니라 「~サマ」의 의미를 가진 영접미사가 단어형성에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자 한다. 그것은 단어형성에서 품사의 결정은 주로 우측주요부규칙이 두루 통용된다는 점과 동일한 형태의 단어가 각기 다른 품사로서 기능할 때는 영접미사파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접두사 「大(オオ)-」와의 결합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가 명사가 아닌 형용동사나 부사로도 파생되는 29例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例語의 사전적 의미가 「大旨」를 제외하고는 모두 「~サマ」로 의미 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大旨」의 경우 부사로 사용될 경우 「仕事は大旨完了した」의 例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文末에 위치하는 술어 「完了した」로 의미적 귀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영접미사파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영접미사파생어의 의미를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 (19) 명사-형용동사 파생

- 大味: 食物の味に微妙な風味の欠けていること(さま)  
 大荒れ: 天氣が悪くて、風・雨・波などがたいへん激しいこと(さま)  
 大慌て: 非常にあわてること(さま)  
 大忙し: 非常に忙しいこと(さま)  
 大急ぎ: 非常に急ぐこと(さま)

#### (20) 명사-부사-형용동사 파생

- 大方: 大部分. 全然. 世間一般によくあるさま

大様: 鷹揚. ゆっくり. 動きの遅いさま

大凡: 物事のあらまし. およそ. 世間並みであること, また, そのさま

(21) 형용동사 파생

大甘: 厳しさがなく, ひどく優しいさま。

大雑把: 細かいところまで注意が行き届かないさま。

大体: 形や規模が大きいさま。

영접미사파생은 접미사의 기능을 가졌다고 생각되는 영형태소(0)가 語基에 결합되어 어떤 어휘항목(단어)이 형태상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며, 의미상으로도 서로 관련성을 유지하면서 통사범주를 달리하게 되는 형태론적인 절차로서의 개념이다 따라서 「大味」의 경우 영접미사파생의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고 있으며, 그것의 사전적 의미는 「食物の味に微妙な風味の欠けていること(さま)」로 기술되고 있는 것이다. 「大急ぎ」또한 「非常に急ぐこと(さま)」로 기술되고 있는 점에서 「~コト」와 「~サマ」즉 명사 이외에 형용동사로도 파생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大(オオ)-」파생어의 형태적 특징은 3.1에서 서술한 3種 외에 다음과 같이 5種을 추가할 수 있다.

(22) [Pre + N]N, AV類: 大味 大荒れ 등

(23) [Pre + A]AV類: 大甘

(24) [Pre + N ]AV類: 大雑把 大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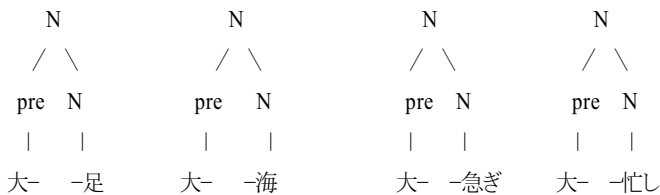
(25) [Pre + N]N, AD類: 大旨

(26) [Pre + N]N, AV, AD類: 大方 大様

(Pre:접두사, N:명사, V:동사, AV:형용동사, AD:부사)

「大(オオ)-」파생어의 형태적 특징은 수형도를 통해 보면 더욱 명확하다. 접두사 「大(オオ)-」는 주로 명사 語基에 결합하는데, 그것을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7)은 품사변환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고, (28)은 품사변환 현상이 발견되는 경우이다.

(27)



즉 「大足」과 「大海」의 경우, 語基 「足/海」는 원래 명사인 것이 그대로 명사로 파생되고 있고, 「大急ぎ」의 경우는 語基 「急ぎ」가 동사 「急ぐ」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결합되고 있으며, 「大忙し」의 경우, 「円高」에서 보는 것처럼 형용사 어간 「忙し」가 복합명사의 後項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한편 명사 및 형용동사로 파생되는 「大味」와 「大急ぎ」의 경우를 보면 단어형성 과정에서 「~サマ」의 의미가文末에 위치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접미사가 語基의 뒤에 위치하면서 품사성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8)

N	AN	N	AN
/ \	/ \	/ \	/ \
pre N	N \	pre N	N \
	/ \ \		/ \ \
大- 味	pre N AN	大- 急ぎ	pre N AN
	大- 味 Ø(サマ)		大- 急ぎ Ø(サマ)

#### 4. 결론

本稿에서는 접두사 「大(オオ)-」 단어형성의 특성을 밝히고자 형태, 의미, 통사적 분석을 통해 살폈다. 접두사 「大(オオ)-」의 단어형성에 있어서 형태적 특성은 語基의 특성 및 품사변환 현상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여덟 유형으로 정리된다.

- ① [Pre + N]N類: 大商人, 大胡床, 大顎 등
- ② [Pre + [V]N]N類: 大商い, あしらい, 大当り 등
- ③ [Pre + A]N類: 大甘, 大忙し, 大辛 등
- ④ [Pre + N]N, AV類: 大味 大荒れ 등
- ⑤ [Pre + A]AV類: 大甘
- ⑥ [Pre + N ]AV類: 大雑把 大体
- ⑦ [Pre + N]N, AD類: 大旨
- ⑧ [Pre + N]N, AV, AD類: 大方 大様

접두사 「大(オオ)-」는 명사와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異形態인 「大(タイ)-」 및 「大(ダイ)-」와는 단어형성에서 語基가 漢語인지 고유의 일본어인지에 따라 결합에 제한이 있다. 그러나 몇 例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의미상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접두사 「大(オオ)-」가 語基를 명사로 제한한다고는 하나 語基 자체가 완전한 명사 형태가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단어형성 과정에서 명사로 파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大(オオ)-」 파생어가 語基를 고유의 일본어로 제한함에 따라 그것에 대응하는 대의어도 「小(しょう)-」 형태가 아니라 「小(コ)-」 형태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大(オオ)-」 파생어의 의미는 「大金, 大枡」가 각각 「多くの金銭, 普通のものより大形の枡」를 의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語基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의미적 有緣性을 유지하면서 結合語基의 의미에 「大」의 의미가 첨가 보충되고 있는 것이 대다수이다. 그런 한편 「大荒目, 大歌, 大口, 大庭」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의 轉用이 나타나기도 한다.

접두사 「大(オオ)-」는 주로 명사 語基와 결합하여 명사 파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大(オオ)-」 파생어는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동사나 부사로도 파생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本稿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주로 「大(オオ)-」 파생어에 「~サマ」의 의미 기능이 추가될 때 발생하고 있음에 착목하여, 품사변환이 발생하는 것은 접두사 「大(オオ)-」 때문이 아니라 「~サマ」의 의미를 가진 영접미사가 결합한 영접미사 파생의 결과로 보고 있다.

## ◀ 참고문헌 ▶

### <자료>

Dual 大辞林 [Web版], <https://acnt.dual-d.net/cgi-bin/form.cgi?dict=daijrn>

国語学会編(1981)『国語学大辞典』 東京堂出版

야후 재팬 <http://dic.yahoo.co.jp>

### <인용문헌>

이석주(1992) 「零派生에 대한 고찰」 『국어학 연구 백년사』, 일조각, pp.280-291

최태욱(2002) 「일본어 단어형성에 있어서 영접미사 파생에 관한 연구」 『일어교육』 제20집,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79-88

相原林司(1986) 「不-, 無-, 非-, 未-」 『日本語学』 1986년 3월호, 明治書院, pp.67-72

影山太郎(1997) 「日英語の語形成」 『語構成』, ひつじ書房, pp.46-56

阪倉篤義(1997) 「語構成序説」 『語構成』, ひつじ書房, p.20

佐山佳子(1986) 「おお-, だい-, たい- (大)」 『日本語学』 1986년 3월호, 明治書院, pp.36-42

田川拓海(2007) 「二種類の範疇変化とその構造的定義」 『言語学論叢第26号』, 筑波大学一般・応用言語学研究室, pp.1-15

西尾寅弥(1997), 「動詞連用形の名詞化に関する一考察」, 『語構成』, ひつじ書房, p.193

野村雅昭(1973) 「否定の接頭語無・不・非・未の用法」 『ことばの研究』 第4輯, 国立国語研究所, pp.31-50

\_\_\_\_\_(1977) 「派生語のつくられかた」 『岩波講座日本語9 語彙と意味』 岩波書店,

益岡隆志・田窪行則(1992) 『基礎日本語文法』, くろしお出版, p.68

山田孝雄(1936/1984) 『日本文法学概論』 제 9판, 宝文館出版, pp.553-570

■ 논문접수일 : 2010년 10월 30일

■ 논문심사일 : 2010년 11월 10일

■ 게재확정일 : 2010년 12월 2일

**【필자 인적사항】**

논문제목 : 국문 접두사 「大(オオ)-」의 단어형성과 품사변환

영문제목 : Word Formation & Conversion of Prefix 「大(オオ)-」

필자명 : 최태옥                      영문명 : Choi,taeog

소속 : 한국국제대학교            전공분야 : 일어학

주소 : (660-759) 경남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270

전화번호 : 055-751-8263          휴대전화 : 010-8794-6939